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화일반

예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예술과 사회의 소통 체계 만들어야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예술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 영역으로 확산시켜, 예술과 사회와의 소통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예술은 창작자와 소비자의 소통미디어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 and 사회의 소통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위원회가 예술과 사회와의 소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학순
-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문화학부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첫 항해를 시작하였다. 지난 1973년이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일궈온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과 비전을 열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

예술위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예술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 영역으로 확산시켜, 예술과 사회와의 소통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예술은 창작자와 소비자의 소통미디어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 and 사회의 소통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은 문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와 기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가 예술과 사회와의 소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첫째, 최근 영국의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정책의 영역이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영고용, 불확실한 소득, 불안정한 사회복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기초예술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예술가로서의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도 있지만, 창작 활동 외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컨대, 최근에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강화되면서 예술가들이 학교 및 사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미래의 예술창작자로, 그리고 예술소비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경영, 예술교육기획 분야도 예술적 전문성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 또는 미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위원회는 예술시장과 예술가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예술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이 사회전반에서 새로운 가치창출하게 해야

둘째,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예술이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도시설계, 건축, 지역개발, 관광, 청소년, 기업, 사회복지, 여가, 도시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예술 친화적 접근이 미래 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예술과 사회의 소통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도 예술의 발전과 예술 친화적 접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예술형식 지향해야

셋째, 예술형식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폐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창조하는 열린 예술형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실험예술과 독립예술, 그리고 새로운 예술형식의 탐구가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예술위원회는 인터아트와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디지털기술이 발전하고, 예술표현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 활동이 뉴미디어아트, 디지털아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예술의 경계가 점차 약해지고, 장르 간 융합 형태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미디어 또한 갤러리 전시공간을 넘어 전자매체, 건축물, 컴퓨터, 도시 공간 등 다양해지고 있다. 디자인예술의 경우에도 기존의 시각디자인 장르를 넘어 디지털영상디자인으로 발전하면서 예술영역에서 디지털콘텐츠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오감 체감형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창작 소재도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다양성 기반으로 조정과 네트워크 중심기능 수행해야

넷째, 예술위원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정과 네트워크 중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술 장르도 다양하며, 문화의 지역적 기반도 다양하다. 예술창작의 세계에 참여하는 예술가도 다양하고, 소비자의 가치관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되면, 예술의 차원을 넘어 이해관계의 갈등과 힘의 역학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예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투영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 인가 하는 점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다양성이 활발하게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예술위원회는 예술장르, 지역, 이익단체, 정치적 압력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으로 예술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여 우리나라 예술과 문화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Arts
Together

Arts Council KOREA